

새만금 개발 앞당기는 계기 마련

11월

28일은 새만금방조제가 첫 삽을 뜬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새만금 개발은 송하진 도지사의 민선 7기에 들어서 현 정부 등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핵심 기반시설, 내부개발, 투자유치 등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 국가와 전북의 성장동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송하진 도지사를 찾아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새만금의 개발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Q. 새만금방조제 착공 30주년을 맞은 지사님의 소회는?

-새만금 사업이 첫 삽을 뜬지 30년이 지났지만 방조제 완공에만 19년이나 걸렸고 실질적인 내부 개발과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습니다. 환경 파괴를 이유로 수 차례 사업중단 요구가 제기됐고, 두 차례의 공사 중단 사태도 있었죠.

제가 도지사 취임 후 민간주도의 개발방식으로는 더딘 개발 속도를 타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통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공공주도 매립, 새만금개발청 이전을 요청했고 결국 모두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개발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부합니다. 이후 새만금의 사업 위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연간 6~7,000억원에 불과하던 사업예산은 1조원을 넘어가기 시작했고 매립 사업이 공공주도로 전환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새만금의 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며 항구적 거주공간인 수변도시 조성도 시작됐습니다.

희망이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 새만금은 지금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음. 앞으로 더욱 속도감 있는 개발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새만금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요?

- 새만금에는 전북의 한이 서리고 흠이 깃들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거치는 반대를 극복하고 이뤄낸 역사적 결과물이며, 눈물과 땀으로 이뤄낸 미래의 꿈과 희망의 상징물입니다. 법적 판단이 끝난 문제를 반복한다면 손실과 대립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다시 감당해야 하죠.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도 우리의 과학적 기술과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새만금은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이상 최고의 삶의 공간으로 가꿔나가야 합니다. 새만금을 자연과 공존 조화되는 생태명령 시대 최고의 문명적 삶의 공간으로 가꾸고 희망의 땅으로 후대에 길이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죠.

새만금은 전북, 더 나아가 대한민국 꿈과 희망이 걸린 미래 발전의 동광로이자 보물창고인 가속화된 내부개발 속도를 발판으로 새만금을 미래 생태명령시대의 보고(寶庫)로 만들어가겠습니다.

Q. 새만금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신다면?

-우리나라의 간척사업은 주로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지확보 차원에서 추진됐습니다.

1970년대에 정부 국토화장 사업에 따른 서해안 간척개발사업을 검토하면서 가장 입지조건이 적합한 지역으로 새만금이 떠오릅니다.

정차관에서도 낙후된 전북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간척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1987년 대통령 선거당시 대통령후보(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의 선거공약에 등장했습니다.

1991년 1월 19일 여야 영수회담(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평민당 총재)에서 개발 착수를 합의하고 추경예산에 200억원을 확보한 것이 사업의 시발점입니다.

'새만금'이란 만경광야의 만(萬)자와 김제 광야의 금(金)자를 따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여 만든 말로 만경·김제광야와 같은 육토를 새로이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위와 소송 등 우여곡절 끝에 2010년 방조제 준공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0년이 소요된 대역사인 만큼 계획도 초기와는 달라졌어요. 1989년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할 때는 100% 농업·식량생산기지 조성을 목표로 했으나 시대 변화에 따라 두 차례에 걸친 토지이용구상안 변경을 통해 현재 농업용지와 비농업용지 구성은 30:70으로 변화했습니다.

Q. 여전히 크고 작은 반대와 갈등이 이어지



고 있는데요?

새만금은 모든 행정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사업입니다. 2001년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매립면허 취소소송'은 5년여의 공방 끝에 2006년 대법원으로부터 매립 면허 작별 판결을 받았어요.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법적 환경문제는 일단락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수유류 역시 현재 하루에 두 차례씩 이뤄지고 있습니다. 새만금호 담수화는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으로 농지 비율이 30%로 축소된 지금은 해수유류와 담수화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호수면이 해수면보다 낮아야 한다는 관리수위를 유지하며 해수유류를 하는 것이 현 상황에 더 필요합니다. 지지부진하던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호수 수질개선 대책 등을 통해 개발과 해수유류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 이미 궤도에 오른 새만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적 판단이 끝난 문제를 반복한다면 손실과 대립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다시 감당해야 하죠.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도 우리의 과학적 기술과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새만금은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이상 최고의 삶의 공간으로 가꿔나가야 합니다. 새만금을 자연과 공존 조화되는 생태명령 시대 최고의 문명적 삶의 공간으로 가꾸고 희망의 땅으로 후대에 길이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죠.

Q. 올해 초 '새만금 기본계획'이 새롭게 바뀌었는데,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요?

-2020년까지 새만금 1단계 사업이 종료되면서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올해 2월 새만금위원회(최종 의결기구)를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MP)이 변경됐습니다.

새만금의 미래상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재정립하고 4차 산업혁명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경제·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 수변도시 ▲친환경 첨단농업 육성 거점 ▲특색 있는 관광·생태 중심도시 ▲세계로 열린 개방형 경제특구 등 K-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전략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함으로써 2050년까지 사업 완료율 목표도 10년 단위의 단계별 로드맵과 사업모형을 제시했고, 방대한 사업면적을 고려해 새만금 지역을 5대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내에서 일·삶·여가가 완성되는, 자족성을 고려한 개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던 지역간 연결도로(L=20.7km, 9,191억원)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투자진흥지구, 국가시험사업 추진(인프라 지원) 등 사업지구별 전략 분야에 맞는 특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죠.

Q. 새만금 내부 용지개발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는지요?

-착공 후 현재까지 30년이나 되었지만 계획면적(291km²) 대비 42.8%만 매립 완료(124.5km²)되거나 진행중으로 전반적으로 더딘 것은 분명하지만 공공사업자가 매립중인 농생명용지, 산업용지, 잠비리부지 등은 상당 부분 진척이



문 대통령과 직접 대화 통해 새만금개발청 이전 등 이뤄내

전북인의 땀으로 이뤄낸 미래 꿈과 희망의 상징물

그린성장 실현하는 신산업 중심지로 재정립



이 되었어요. 탄소중립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탄소배출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SK그룹이 RE100을 선언하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새만금에 2조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도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에 주목했기 때문이죠.

현재 새만금지역에 3GW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1단계 육상태양광 0.3GW 발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Q. 새만금 투자유치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성과와 전망은?

-새만금이 한국형 그린뉴딜을 이끌어갈 핵심 선도지역으로 부각되면서 신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영커기업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ESG경영을 선택한 SK그룹은 작년 말 2조 원대 데이터센터 유치와 창업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위한 투자를 결정했고, 지난 7월에는 전기차의 핵심소재인 전해질 소재 부문 세계 1위 기업인 전보BLS가 이차전지 전해질 제조공장 건립을 위해 5,000억원대 투자를 결



정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제조업이 아닌 신산업 중심의 투자이자 대기업 및 대규모 투자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큼니다.

Q. 새만금에 빼놓을 수 없는 문화 관광 개발 사업 추진상황은?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인 국제공항, 신항만 도로, 철도 등 구축이 가시화되고 수변도시 개발, 2023년 세계잡퍼대회 등 투자 여건이 마련되면서 새만금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사업도 활발히 진행중입니다.

신시아이 관광레저용지 약 1.9km²에 총사업비 8,788억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기반시설 및 신시도호텔(2025년)이 2023년 6월까지 건립될 예정입니다.

새만금 1호방조제 시작점에 사업비 2,548억원, 개발면적 1.1km² 규모의초읍지 개발사업이 추진중이며 사업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가 지난 7월에 매립공사를 완료해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 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시도와 무너짐을 잇는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L=4.8km 사업비 1,000억원) 조성은 현재 도시계획시설(제도) 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새만금 내 민간투자 관광사업으로는 새만금 VR테마파크 & 리조트 개발사업(통합개발계획 수립중), 헬리콥터 테마파크 개발사업(통합개발계획 수립중), 정주형 테마마을 조성사업(우선협상자와 협상 중)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우선협상자 선정 중)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시도에 국립 자연휴양림이 개관했고, 새만금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국립새만금근대 박물관 국내 최초로 간척지에 조성되는 새만금 수목원 등도 본격 추진되고 있어 새만금 지역의 문화관광 개발사업이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새만금의 향후 개발방향은?

-새만금 기본계획을 통해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라는 비전과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라는 미래상을 제시했습니다.

새만금 비전 달성을 위해 그린에너지와 신기술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와 기능 간 융복합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전 세계적 기조인 2050 탄소중립과 RE100 실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2050 탄소중립의 견인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연구개발과 창업 및 영커기업 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로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스마트기술 기반의 신기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명품 수변도시 조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첨단 IT기술 기반의 스마트농업 육성과 주요 곡물 식량재정기반 및 수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친환경 첨단농업 거점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간척개발 등 새만금만이 가진 특성을 관광자원화하고 자연·문화·물길 등을 새만금의 환경적 가치를 제고하는 요소로 활용해 특색있는 관광생태 중심도시로 만들어감과 동시에 공항·항만 기반의 경제특구를 개발하고 철도와 연계한 복합물류체계 구축, 맞춤형 인센티브와 윈윈형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세계로 열린 개방형 경제특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호상 기자